

# “과감한 색채 도입... 변화하는 모습 보여줄 것”

전남대 김대길 교수 정년 앞두고 담양 대담미술관서 'Vitality' 전 자연·인체의 생명력 '씨앗' 테마

노란 은행잎, 바스락거리는 낙엽, 푸른 하늘, 멋들어진 미술관 건물, 세월의 향기가 묻은 한옥... 늦가을 정취 속으로 들어간 조각 작품들은 한쪽의 멋진 풍경화였다.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김대길(전남대 교수) 조각가 전시회에 다녀왔다. 내년 8월 정년을 앞두고 있는 그가 42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열고 있는 전시다. '대학시절,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늘 돌을 쪼고 있던 김대길 선생'을 기억하는 대담미술관 정희남 관장과 2년 여전부터 준비했던 전시인 터라, 미술관 야외 공간과 잘 맞아떨어진 작품 구성과 배치는 '조각'의 매력을 잘 보여준다.

"제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게 이번 전시 주제이기도 한 생명력입니다. 작품이나 인생이나 갖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죠. 정년은 끝이 아니에요. 긴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제가 변화하는 모습의 '일부'라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Vitality-아름다운 여정'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건 흑백 모노톤이 주조를 이루던 데서 한발짝 나아간 과감한 색채의 차용이다.

"자연에서, 인체에서 얻어낸 생명력을 테마로 작업해왔어요. 생명을 만드는 '씨앗'은 그 출발이죠. 인체가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되기 전 손가락, 발가락, 가슴의 형태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죠. 암수, 음양, 검은 것, 흰 것 등 '대조'를 통해 상징적인 개념에 실체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왜 조각은 대리석, 브론즈 등 기존 물성을 살리는 쪽으로만 작업할까, 평면 작업의 다양한 색채를 끌어들이지 못한 걸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색을 써 보는 길에 적극적으로 쓰자. 확 뒤집어보자 싶었어요. 전통 오방색을 응용하고, 또 섞기도 하면서 생명력을 불어 넣으려 했습니다."

작은 연못 등이 어우러진 전시장 야외



대표작 'VITALITY-O' 앞에서 포즈를 취한 조각가 김대길 전남대 교수

에 설치된 '생명력' 시리즈는 기둥, 원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 있다.

"제 작품이 상징성이 강해서 개인적으로 소유하기가 힘들다고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작품은 '공유'의 개념이 강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가 딱 맞죠. 제 자신부터 자연의 변화에 따라 이 작품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자연이 우연히 만들어내는 풍경들과 어울려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영감을 얻는 과정입니다."

실내에 전시된 소품들은 '장미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군상'처럼 구성했다. 각각의 작품은 고향 돌산바다의 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했고 캔디도장 등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도 사용했다. 그는 작품에 맞는 재료와 작업 형태를 꾸준히 탐구했고 '생명력'이라는 주제에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받아들인다.

"작품에 장미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체의 부분도



'생명2'

있고 바다 이미지도 있구요. 또 다양한 문양을 넣고 회화적인 요소를 넣다보니 정원의 개념으로 확장됐어요. 생기발랄함이 살아 있는 색채는 '생명'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강렬한 경험 중 하나는 1997년 밀라노 두오모 성당 앞에서 들었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었다. 수백명의 합창단과 나부쿠리나가 부르는 노래 중 "가라 나의 생각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라는 부분이 마음에 꽂혔다. 예술가가, 인간이 가져야 할 자유로움을 대변하는 것, 예술가들이라면 누구나 갈구하고 꿈꾸는 것이었다. 그의 좌우명이 됐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늘 이르는 말이 됐다.

제자들 이야기를 하며 그는 눈물을 보였다. 42년간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에서 살았던 그는 "학생들이 내 스승이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 젊은 제자들과 호흡하다 보니까 자꾸 젊어지더군요. 애써 변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던 듯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지. 작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학생들은 제 스승입니다. 많이 했던 말이 '생각을 키워야한다'는 것이었어요. 저 역시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게으름은 조각가에게 죄악과 같은 것이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그의 비행기 마일리지 60만 마일에 달한다. 90년대초부터 목돈이 생기면 유럽 등지로 날아갔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을 넓히고 확장시키는 데 여행만큼 좋은 건 없었다. 그 자신이 90년대 1년 8개월 파리에 머물며 만났던 미니멀리즘, 다다, 이슬람문화는 큰 자양분이 됐고, 이후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다.

"아카데미한 것과 함께 현대적-산업적이기(세련)도 적극 활용해 늘 도전하고 싶다"는 그는 영원한 청년이었다. 눈 내리는 겨울, 대담미술관과 담양의 자연, 그리고 김대길의 조각이 만들어내는 근사한 풍경을 기대해본다. 10월말 개막한 전시는 내년 2월말까지 이어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를 보는 각자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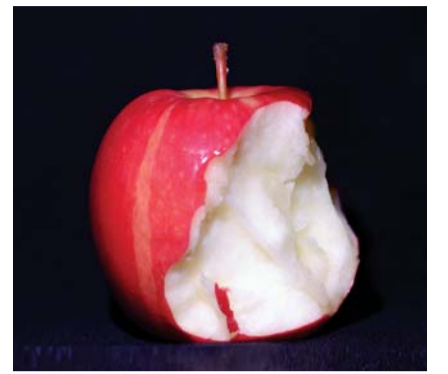
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입주작가전, 12월5일까지 미디어338

광주 지닌 도시의 의미를 넘어 작가 자신들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미디어 작품이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광주 뿐 아니라 서울, 프랑스, 영국 등 서로 다른 활동 배경을 가진 작가들이 한 공간에 모여 각자의 시선으로 광주를 이야기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 작가 5명의 결과 전시 'The Five Media Artists'는 가 12월 5일까지 미디어아트 특화 전시장 미디어338(빛고을 아트스페이스2층)에서 열린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임용현, 작가수요 일(최석영), 백나원, 유지원, 김명우 작가는 창작공간(스튜디오) 및 창작지원금, 레지던스 프로그램(전시, 워크숍, 비평가매칭 등)을 지원받았다. 이 기간 입주작가들은 지역인과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아카데미와 기획전시, 지역 간 교류, 공공 미디어아트 작품 프로젝트, 2019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임용현 작가는 'Apple Consume'이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새로운 미디어를 접하고 소비하며 느끼는 감각이 사라지기 무섭게 또 다시 생산되는 새로운 미디어에 초점을 맞췄다. 홀로그램 팬을 이용한 설치 작품으로 작가는 끊임없이 소비와 생산을 반복하는 양상을 주목한다.



임용현 작 'Apple Consume'

백나원 작가의 '세 번째 순환의 장'은 광주 생활의 일상적 순환과 작가의 레지던스 생활을 대변하는 루틴을 보여준다. 지나온 시간들을 일련의 형태로 작품에 녹여 내는 동시에 작가 자신의 내외면 시간적 변화를 형상화했다.

작가수요일은 누구나 모나리자가 될 수 있다는 상상으로, 미디어에 의해 자신의 가치조차 잊혀지는 현대인들이 '모나리자'처럼 작가의 모델로서 미소 짓게하는 프로젝트다.

김명우 작가는 인간과 매체가 지니는 순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2개의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광주 길거리 일상이 사회, 속도, 매체라는 상징성을 넘어 시간 안의 순환구조를 나타낸다. 일·월요일 휴관. /박성현 기자 skypark@

## 광주시립미술관, 오늘 야닉호프만 초청 강연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아트 센터인 독일 ZKM 예술&미디어센터 큐레이터 야닉 호프만(사진) 초청 강연을 27일 오후 2시 30분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27일 개막하는 광주시립미술관 미디어아트 전시 'Time Cubism'과 연계한 행사다. '미디어 아트-모험적인 예술작업'을 주제로 강의하는 야닉 호프만은 예술 콘텐츠 제작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헤르츠-랩'을 소개한다.



'헤르츠-랩'은 주 파수를 발견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하인리히 헤르츠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로 예술가, 연구자, 테크니션, 큐레이터가 한 팀이 돼 기술적 진보와 디지털화 시대에서 예술적-미디어적 가능성들에 대한 다학제(多學制)적 관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 국립나주박물관, 28일 김용택 시인 초청 강연

자연을 노래하는 김용택(사진) 시인 초청 강연이 국립나주박물관에서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용택 시인은 역사 인문학 강자인 '미한문화아카데미'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쓰다'를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 시인은 "농부들은 자연이 하는 말을 나에게 전해주었고 나는 농부들이 하는 말을 받아 적으며 산다. 나의 시는 그 속



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말한다. 이번 강의는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 적었다고 말하는 시인의 이야기 통해 우리가 자연과 몇 삼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

## 남구합창단 정기연주회, 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 남구합창단의 제20회 정기연주회가 28일 오후 7시30분 사직동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가을 그리움'이

다. 레퍼토리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 오는 곳', 탁우빈의 '별이 빛나는 길', 윤경미의 '가을 그리움', 우덕상의 '그대 눈 속에 바다', 오석준의 '웃어요',

'빨간구두 아가씨-아빠의 청춘 메들리' 등으로 깊어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수놓는다.

이날 공연에는 여성 현악단인 K아트 앙상블이 특별 출연해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서곡,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등을 선보인다.

또 소프라노 신은선이 김동진의 '신아리랑'을 들려준다. 지휘는 성악가 정찬경이 맡았고 이우정(피아노), 박승원(바이올린), 김유미(전 광주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이 함께 무대에 올라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채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